

시즌 7승 도전하는 박인비

다시 시작할 준비됐다



“캐나다 오픈, 빠른 그린에 좁은 페어웨이 기대된다” 우승 자신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시즌 7승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인비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 페어 골프장(파70·6403야드)에서 열리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날 초 브라질시 여자 오픈을 마치고 약 2주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박인비는 이번 시즌 메이저 3승을 포함해 6승을 거두며 최강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6월 US오픈 우승 이후 출전한 세 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10위 안에 들지 못해 최근 내리세이 것이 사실이다. 박인비는 20일 대회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했다. 2007년 8월 이 장소에서 열린 캐나

다 오픈에 출전했던 박인비는 “그때와 많이 달라져 새로운 코스처럼 느껴진다”면서도 “그린 스피드가 빠른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평소 빠른 스피드의 그린을 선호한다고 밝힌 박인비는 “최근 출전했던 대회는 그린 스피드가 이 정도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는 그린 스피드도 빠르고, 페어웨이가 좁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인비는 “퀵리더 그랜드 슬램”을 노린 브라질시 오픈에서도 맞대결 3, 4라운드에서 느린 그린 스피드 탓에 고전했다. 당시 3라운드 경기가 강풍으로 하루 미뤄지면서 대회 주최 측에서는 강한 바람에 공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그린 위 잔디를 손질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그린 스피드가 느려졌다. 박인비는 “우선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것이 관건이고 퍼트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린 스피드 때문에 퍼트를 실수하면 자칫 5m 가까이 흠을 지나칠 수도 있다. 바람을 잘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리티시 오픈 당시 큰 부담을 느꼈다는 박인비는 “지금은 훨씬 마음이 가볍다. 좋은 경험이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이나 앞으로 선수 인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컨디션도 좋고 공도 잘 맞고 퍼트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아마추어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가 우승하는 바람에 우승 상금을 차지한 박인비는 “올해는 우승 상금은 물론 우승 트로피까지 받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디펜딩 챔피언” 리디아 고는 “지난 18일 박인비와 함께 퍼트 연습을 했다”고 소개하며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지만 세계 랭킹 1위의 퍼트는 어떤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 체육발전위...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는 지난 20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53개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회의 제94회 인선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과 전남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 체육회 제공>

한국유도 간판 왕기춘 금빛 도전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왕기춘(호항시청)과 조준호(한국마사회)가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13 세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2007년과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왕기춘과 지난해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조준호를 비롯한 18명(남자 9명·여자 9명)의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국, 현지 적응훈련에 나선 뒤 26일부터 남자 60kg급과 여자 48kg급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메달 수확에 나선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1년 파리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2011년 대회에서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이 남자 81kg급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어깨와 허리 부상이 낫지 않아 참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07년과 2009년 대회에서 남자 73kg급 2연패에 성공한 왕기춘과 지난해 런던올림픽 남자 66kg급 동메달리스트인 조준호에게 내심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왕기춘은 김재범과 함께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활약해왔지만 지난해 런

던 올림픽에서 부상 투혼 끝에 메달 획득에 실패, 잠시 하락세를 맞았다. 철저부심한 왕기춘은 지난해 11월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겸 1차 대표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 명예회복에 성공했고, 지난 6월 체급별 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에서 우승하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판정시비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건 조준호(세계 랭킹 5위)도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을 노린다. 조준호는 2011년 대회에서 66kg급 동메달을 따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이를 발판 삼아 지난해 런던 올림

내달 브라질 세계선수권 조준호 등 18명 메달 사냥

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경량급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그는 올해 2월 몽골 그랑프리 은메달, 3월 파리 그랜드슬램 동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내며 이듬해를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로테르담 대회 동메달 이후 ‘노메달’에 허덕이는 여자 대표팀도 4년 만의 메달 획득을 노린다. 2010년 광주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황예슬(안산시청·세계랭킹 9위)은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여자 70kg급 최정상급의 자리를 지켜내며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브라질 특급’ 루시오 주간 MVP

K리그 챌린지리그 윌터골로 경찰축구단을 무너뜨린 광주FC ‘브라질 특급’ 루시오가 K리그 챌린지 주간 MVP에 선정됐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21일 챌린지리그 20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1위 경찰축구단의 승부에서 2골1득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루시오가 MVP에 선정됐고, 김은선·이광진·박희성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루시오는 “전방에서 강력한 존재감

을 드러내며 선두 경찰을 무너뜨린 윌터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즌 두 번째 MVP가 됐다. 중원의 핵 김은선은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플레이에 메이커로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박희성도 ‘과감하면서도 팀 동료와 조직적인 측면 플

레이로 공격을 지원했다’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여름 이전 시장을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이광진도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자리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으며 생애 첫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위원회는 “효과적인 측면 배후 침투로 팀 공격을 지원했고, 패스 골까지 폭발시켰다”고 이광진의 데뷔전에 찬사를 보냈다. 경찰과의 맞진 승부 4명의 베스트 11을 만든 광주는 오는 26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1라운드 원정경기를 펼친다. /김여울기자 wool@

전남도-경기도 생활체육회 상생협약

전남도 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가 경기도 생활체육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전남도 생활체육회는 지난 20일 도 생활체육회 회의실에서 이탁우 회장과 경기도생활체육회 이원성 회장, 박성웅 경기도 홍보대사(박지성 선수 아버지)를 비롯한 두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생활체육회는

전남도인 생활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을 상호방문해 친선 교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 생활체육회는 2005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와 4개 종목 우호교류를 시작한 후 광주·경남도·제주도·전북도 생활체육회 등 6개 시도 생활체육회와 협약을 맺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행안내

8월 24일(토) ▲광주도요산악회 8월24일(토) 광양 백운산 아저씨곡, 07:30 영주체육관 출발(광주, 비엔날레주차장 경우)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010 3608 4267, 010 3641 6153 ▲광주도요산악회 8월 24일(토) 지리산 칠선계곡, 07:30 영주체육관 주차장, 07:50 무등경기장 후문, 08:00 문예회관 후문, 08:10 비엔날레 주차장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광주4050산악회 010 3623 7382, 010 4949 2628 ▲광주출신산악회 8월25일(일) 무주 덕유산 향적봉 구간 등반, 08:00 광주역 앞 ※다음카페 광주출신산악회 010 8614 8267, 011 608 7627

광주청룡산악회 011 646 3450, 011 259 0284 8월 29일(목) ▲블랙야크40명산악회 8월29일(목) 가지산 운무산, 06:00 영주상무정전차, 06:10 교원광제, 06:20 문예후문, 06:30 동광주블랙야크 ※다음카페 빛고을블랙야크40명산악회 010 3619 3533

010 3604 0365, 016 747 5748 ▲광주희망도요산악회 8월24일(토) 지리산 제2봉 반야봉과 별사골, 영주체육관 06:30, 광주역 06:45,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희망도요산악회 010 9602 3925, 010 7750 7210

▲광주미래로 도요산악회 9월7일(토) 지리산 세석 평면 후대봉, 영주체육관 07:00, 광주역 07:15, 문예회관 후문 07:25, 비엔날레 주차장 07:30 ※다음카페 미래로도요산악회 010 4729 4482, 010 3606 8627

010 3604 0365, 016 747 5748 ▲광주희망도요산악회 8월24일(토) 지리산 제2봉 반야봉과 별사골, 영주체육관 06:30, 광주역 06:45, 비엔날레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희망도요산악회 010 9602 3925, 010 7750 7210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featuring movie listing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ike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and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